

금주의 법구-〈법집요송경〉
스스로 힘써 닦아야 한다
자신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서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4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1099호 2016년 6월 1일 수요일

재가안거 증가세 인프라 구축 시급

불기2560년 재가자 안거 문화 진단

스님들이 여름철 우기와 겨울 혹한기 한군데 모여 수행정진하는 '안거'가 재가불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재가자 안거 동참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초심자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나 매뉴얼 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5월 19일 재가안거에 입재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하안거에서는 22개 사찰 및 기관에서 2000여 명이 접수했다. 2014년 동안거 당시 16개 사찰에서 1000여 명, 2015년 하안거 당시 18개 사찰서 17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재가자들의 안거 참여 열기 확산은 각박해지는 사회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은 "수행을 어렵게만, 혹은 스님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주변인의 추천으로 처음 접하는 이들이 많다"며 "1주일에 1번씩 한자리에 모여 집중수행하고 또 집중하는 간소한 과정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열기에 사찰이나 관계기관의 참여도 함께 늘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총림인 백양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민선방을 개설했고, 부산에서는 동명대 세계선센터를 비롯한 3개 단체가 재가자 안거에 새롭게 참여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재가자 안거 참여에 비해 이에 대한 관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찰 연합회가 주도해 공동 매뉴얼과 체계를 갖춘 부산지역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지역은 접근성이 좋고, 지도법사 스님이 맞춤형 지도를 하는 선원에 사람들이 몰리는 실정이다.

봉은사 시민선원을 운영하는 차학진 교무교육팀장은 "매년 100여 명이 넘게 찾아오고 있다. 선방 공간에 한계가 있어 면접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용화선원 또한 늘어난 재가자 선객들로 인해 최근 시민선방 증장불사를 단행했다. 용화선원은 7월부터 집중수행을 재개한다.

조계사 시민선원을 운영하는 이근혜 선원팀 행정관은 "구참자들은 마음이

맞는 도반들과 함께, 혹은 지도법사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문화가 있다"며 "대중들이 한군데 모이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는 일도 있다. 초심자와 구참자가 섞이다 보면 서로 불편하기에 이런 문화가 굳어졌다"고 귀띔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칫 재가자 안거에 발심한 초심자들이 소외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지역 S선원 관계자는 "선방에 일정수준의 수행력이 기반돼야 한다. 어차피 수행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초심자들을 이끄는 경우도 많다. 서울 안국선원은 좋은 예다. 은암 안국선원 홍보운영팀장은 "선원장 스님이 센터장으로

부산지역 증가, 고불총림도 시행

수치 집계 없고 운영은 '재량'

운영자 '구참자 위주 문화 존재'

초심자 위한 시스템 마련 절실

있는 동국대 국제선센터 등과 연계하여 간혹선 지도를 한 후, 선원에서 신도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함께 안거에 들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초심자들도 이 과정을 통해 일정수준의 수행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안국선원의 경우 매년 동참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 동안거에 비해 30여 명이 늘어난 960명이 방부를 들었다.

개별사찰의 노력과 함께 종단 차원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06년 조계종 포교원이 보급하려 한 간혹선 초심자 입문과정은 중단된 상황이다. 포교원은 최근 조계종부산연합회가 보급한 매뉴얼을 참고자료로 확보했다. 여기에는 초심자, 특히 직장인들이 간혹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수행지침 등이 세세히 기록돼 있으며, 수행록 등이 포함됐다.

고명석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은 "신도교육과 수행경력을 담을 수 있는 일지로 새롭게 고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대중포교’ 원력으로 쌓아올린 <불광> 500호 월간 <불광>의 500호 발간 기념전이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개막했다. 사진은 월간 <불광>으로 쌓아올린 부처님상 앞에서 불자들이 불광 잡지를 읽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 두번째가 불광 발행인 지홍 스님. 세 번째는 조계종 포교부장 무각 스님이다. 노덕현 기자

교계 장편 작가 키워낼 ‘틔밭’ 생긴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법계문학상’ 제정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거목인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사진)이 불교계 신진 장편 작가 양성을 위해 기금을 출연, 문학상을 제정했다.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남지심)는 5월 25일 서울 인사동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학상 제정 취지와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전국 최대규모의 비구니 전문 교육도량으로 키운 명성 스님의 뜻에 따라 제정됐다. 스님의 법호인 ‘법계’를 따서 만든 법계문학상은 한국문학의 발전과 불교 포교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명성 스님은 문학만큼 불교정신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고 판단해 문학상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상부문은 장편소설과 장편동화, 아직 등단하지 않은 신인 및 등단 5년 미만인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작품은 매년 10월 31일 마감하며, 장편소설은 원고지 1천매 내외, 장편동화는 원고지 300매 내외의 분량이어야 한다. 예심과 본심을 거쳐 대상작품에 상금 1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우수상은 상금 500만원, 가작은 상금 300만원. 시상식은 12월 초에 열린다.

법계문학상은 기존 불교계 문학상들이 쉽게 다루지 못했던 장편소설과 동



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학상으로는 현대불교문학상과

유심작품상이 있지만 시·시조·학술·단편소설·평론 등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남지심 운영위원장은 "장편은 작가의 긴 호흡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불교적 내용을 풍부하게 담아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며 "불교계에 장편 작가들이 활동할만한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계문학상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는 추후 수상 작품을 모아 작품을 발간하고, 전국 유명 사찰에 배포할 계획이다. 작품이 장편인 만큼 책으로 발간해 작품 생명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계문학상 운영비용은 상금과 작품집 발간, 심사비 등을 포함해 총 4500만원이 소요된다.

명성 스님은 2003년부터 8년간 전국 비구니회장을 역임하고 2007년 명사법계를 폈다. 스님은 2003년부터 비구니 인재 양성을 위해 법계장학회를 조직하고 매년 법계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피폭, 2세로 옮겨지지만 한국정부 무관심”

불사연, ‘피폭 유전 안 된다’는 日연구 전면반박

‘원폭 피해 유전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 내 정설처럼 받아들여진 ‘방사선영향 연구소’의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범안, 이하 불사연)는 5월 25일 <한국 원폭피해자의 인권과 불교계의 역할>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원폭2세 첩터 ‘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장 연암 스님과 김기진 부산일보 편집부국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불사연은 “피폭1세 대다수가 사망하면서 원폭 문제는 후손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회·경제적 고통의 대물림과 함께 방사선 피폭의 유전적 영향이 핵심”이라

며 “과거 유전적 영향을 부정하는 방사선영향연구소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최근 민간 연구자들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고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불사연은 “방사선영향연구소의 과거 연구 결과는 의학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조사대상 집단 설정이 잘못된 점 △원폭투하 주체인 미국이 세운 연구소란 점 △의학·과학기술이 낙후된 시기에 유전성을 조사한 점 등을 지적했다.

불사연은 “연구소는 폭심지로부터 2.5km 밖에 있던 주민을 대조집단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저선량 피폭을 도외시한 것이다. 가장 건강한 피폭자와 피폭자가 뒤섞인 대조집단을 비교한 것”이라며 “또한 이 연구소는 원폭 투하의 주체인 미국에 의해 세워졌다. 민간 의학자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채 독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사연은 “한국 정부는 방사선 피폭의 유전성을 인정치 않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1세 문제는 일본에 떠넘기고, 2세 문제엔 관심조차 없다”며 “일본은 공식적으로 유전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처럼 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5월 19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대상서 원폭피해자 자녀 및 후손이 배제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여진다.

특히 불사연은 보고서 3장서 피폭 2세 김형률(1970~2005)·문택주(64)·한정순(57) 씨의 삶을 다루며, 방사선 피폭 유전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불사연은 2010년 평화박물관관립추진위원회가 실시한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힐링 프로그램’ 결과를 인용하고, “피폭자의 고통은 대물림됐다. 2세들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 방사선 피폭에 기인한 것”이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또 자신이 피폭 2세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적 편견과 멸시를 받을까 모른단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익림 기자 pak502482@hyunbul.com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 청동 촛대 세트

용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 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현불샵 단독
입점 상품

종류	규격(세로/지름)
촛대	사자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大) 28.5cm×34cm (中) 21.5cm×29cm (小) 18.5cm×23cm
다기	향통 (大) 26cm×20cm (中) 22cm×14cm (小) 20cm×13cm
	다기 (大) 26cm×20cm (中) 22cm×14cm (小) 17cm×12cm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